'순창 떡볶이 페스타' 대성황

18개팀 떡볶이 부스·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관객 발길 이어져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열린 '순창 떡볶이 페스타'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열린 '순창 떡볶이 페스타'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장은 순창고추장의 진한 맛과 풍미를 만끽하려는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18개 팀이 참가한 떡볶이 부스에는 순창전통고추장떡볶이부터 순창한우궁중떡볶이, 순창 호박·밤 떡볶이까지 다채로운 메뉴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비건떡볶이, 로제떡볶이, 까르보나라떡볶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은 개점과 동시에 긴 대기 줄이 이어질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주 무대도 축제 내내 열기가 식을 줄 몰랐다. 가족형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마술퍼포먼스, 순창국악원 공연, 순창고등학교 댄스팀 공연, 비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함께 떡볶이 부스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수 떡볶이 시상식도 연이어 펼쳐져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서 진행된 마을트레킹 프로그램은 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참가자들은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순창전통고추장의 명맥을 잇고 있는 장인을 만나 순창고추장만이 가진 맛의 비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ESG를 실천하는 친환경 행사로 치러져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첫 개최임에도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성원을 보내주신 방문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축제의 뜨거운 호응을 발판으로, 순창떡볶이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알찬 축제로 찾아뵙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축제장 곳곳에 마련된 플리마켓과 캐리커쳐, 비눗방울놀이, 타투스티커, 컬러링엽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부스까지 가득 찬 인파로 활기가 넘쳐, 순창의 새로운 대표 축제의 성공적인 탄생을 알렸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14일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시청 관계자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경제적 어려움과 시장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

남원시, 광치산단·소상공인 간담회 등 갖고 의견 나눠

남원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치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책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에는 광치산업단지 간담회에서는 입주기업 대표자 등 30명이 참석하여 기업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였으며, 주요 건의사항은 △관내기업 생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담당 실무자의 현장 방문 △근로자들을 위한 식당 개선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다각적 검토 등이 제안되었다.

신이봉 대표는 "바쁜 일정에도 현장까지 찾아와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최근 경제 불황속에서 관내 기업들에 대한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14일 소상공인 간담회에서는 시청 관계자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경제적 어려움과 시장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주요 논의 사항에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 및 캠페인 활성화 △전통시장의 현대화 지원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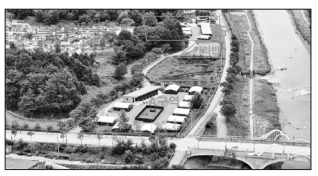
최근 남원시는 시민공감 열린대화, 중소기업인회 등 13개 단체 간담회, 현장 민원 반영을 위한 "남원시장이 간다" 등 현장 목소리 경청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은 분기별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시범운영

임실군, 운영 후 문제점 보완 조성사업 완료키로



임실군이 반려동물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오픈을 앞두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16일, 23일에 1박 2일간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자동차 야영장으로 오수의견관광지 내 조성되어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시설의 미비한 부분들을 확인 및 보완하여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은 데크사이트 구역인 캠핑장A와 캠핑장B, 카라반 사이트 구역의 총 3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캠핑장A와 캠핑장B 각 구역에 11개씩 총 22개의 데크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으며, 카라반 사이트 구역에는 3~4대가 캠핑이 가능하다.

각 사이트에는 반려동물 동반 캠핑을 위한 펜스와 그늘막도 설치되어 있다.

또한, 반려동물 전용 놀이장과 샤워실이 마련되어 있어 반려동물 동반 캠핑객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15일, 16일, 23일 총 3박으로 진행되며, 임실군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을 대상으로 사전 참여 신청을 받아 추진한다.

군은 오수를 반려동물 동반 관광 남부권 메카로 조성하는데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이 선두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내년 2월까지 취약노인 보호대책 추진

남원시는 한파에 대비해 한랭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은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고되어 시에서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방한용품을 사전에 지급하는 등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전열기구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가구는 사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파 대응 행동요령과 건강관리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한파·대설 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생활지원사215명)이 취약노인(3,050명)을 대상으로 전화,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동작감지 확인, 장비 관리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응급상황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임점숙 노인장애인과장은 "겨울철 한파대비 사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남원시는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구현하여 화학비료 사용 감소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영농부담 감소를 위해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등록예정인 경우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업체·제품 수량 및 인수 시기를 정해 12월 1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지원단가는 20kg 1포당 유기질비료 3종 및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이다.

또한, 시에서는 관내 생산 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하여 20kg 1포당 300원을 추가 지원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순창소방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2021년 11월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3년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12월부터 5인승 이상에도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되어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경찰서, 아동이 안전한 임실 위한 간담회 가져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15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을 맞아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동이 안전한 임실'을 목표로 합동 캠페인을 계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임실군청 드림스타트,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논의하였으며, 19일 학부모와 학생 대상 아동학대의 유형과 올바른 신고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 홍보 물품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지역경찰, 수사팀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현장 대응력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우려 아동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